

남녀 중학생의 기술·가정교과 중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활용도 연구

진 상 윤 · 광 경 숙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진경 여자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 같이 주생활 교육내용도 현실생활을 반영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실생활에 활용되고 발전되어 앞으로의 생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차 교육과정부터 기술·가정 교과의 남녀 공수 이래로 전북지역 남녀 중학생들은 기술·가정 교과중 주생활 교육내용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도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주생활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3년 12월중에 전라북도 소재 8개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 52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 제시된 주생활 교육내용을 '생활공간의 활용', '실내환경과 설비', '주택의 유지와 보수'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단순빈도와 %, 신뢰도 검증, 평균과 t-검증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주생활 교육내용의 영역별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중간수준이었으며, '생활공간의 활용', '실내환경과 설비', '주택의 유지와 보수'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별 주생활 교육내용의 활용도는 '생활공간의 활용' 영역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실내 환경과 설비', '주택의 유지와 보수'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생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가정교과의 남녀 공수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실내 환경과 설비', '주택의 유지와 보수' 영역에서 남학생이 높은 것은 식생활이나 의생활과는 달리 주생활 교육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적합하다는 성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주생활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에 따라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으로 생활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학습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